북 화폐개혁 3개월… 심각한 반발 예상

사 회 :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일 시 : 2010년 3월 16일
주 제 :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북한의 상황 진단
장 소 : 평화재단 강당
주 최 : 평화재단 · 좋은벗들
발 표 및 토 론 자 :
이승용(좋은벗들 사무국장)
김영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희(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차문석(통일교육원 교수)

2009년 11월 30일. 북한은 급작스럽게 화폐 교환 조치를 발표했다. 화폐 교환 조치 이후, 현재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3월 16일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북한 사회 동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우리가 북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진정 옳은 것일지 고민해 보는 것이 포럼을 연 이유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 사회 동향

이승용(좋은벗들 사무국장)=2009년 11월 30일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는 2010년 강성대국건설을 맞기 위한 물질적 기본을 담보하자는 것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목적은 대외용일 뿐이며, 실상은 현금 수입 확충과 사회주의 경제구조로서의 복귀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북한의 경제는 개인과 국영기업들의 돈이 국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태가 빈약해 이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생각입니다. 현재 화폐개혁 조치 후, 구 화폐 10만원은 새 화폐 1000원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조치 이후 당국이 국영상점을 통해 유통망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물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종합시장 폐쇄에 돌입한 북한은 물가가 최고 10배 이상 상승하고, 쌀값이 20배, 달러가 10배, 위안화가 1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돈주들이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으면서 중국과의 무역거래도 큰 지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지 못하자, 시장에서는 당연히 물품이 부족하게 된 것이지요.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도 물가가 폭등하자, 장사마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시장의 거래는 완전 얼어 붙었습니다.

식량부족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자 중앙당은 1월 31일부터 임시 시장을 허용했습니다. 물가가 평균 2~3배 이상 폭등하고, 국내 외화 사용 금지 조치로 수입도 중단되다 보니, 북한 사회는 전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시장에서 장사로 어렵게 돈을 번 세대들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폭등하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사하기조차 힘들었던 농민들은 1인당 1만 5000원의 배당금 공급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후 배급과 물품 공급이 중단됐고, 2010년 1월 중순에는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은 현재 "식량을 달라"며 집단 항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배급이 전혀 없는 상황인 북한은, 화폐개혁 조치 이후 시장이 중단되고 물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 중에 굶어죽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당중앙경제정책검열부는 1월 초부터 26일까지 주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굶어죽기 직전에 처했다는 내용의 직보가 전국적으로 약 5660여 건, 이 중 굶어 죽었다는 보고가 2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춘궁기 때 농민들이 많이 죽었던 것과 달리, 2010년에는 농민들보다 주로 장사에 의존하던 도시 노동자들이 식량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사자도 주로 도시 노동자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 좋은벗들 이승용 사무국장, 동국대 박순성 교수, 서강대 김영수 교수, 산업은행 김영희 연구원이 평화재단 제37차 전문가 포럼에서 '화폐개혁 조치 이후 북한의 상황진단'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현재 북한 당국은 일부 경제지도 일꾼들의 잘못으로 인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개인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내각 총리와 박남기 경제정책부장이 인민반장 이상이 참여한 평화 내각 총회에서는 화폐개혁 조치에 관련한 사과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회혼란 책임을 인정한 이들은 "3개월만 기다려 달라. 이제 쌀이 풀린다. 좀 더 참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지방당원을 중심으로 당국의 화폐개혁 조치가 준비성 있는 조치였는가, 배급이 가능한가 등을 놓고 동요하는 것으로 보여져, 북한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청중들은 현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북한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화폐개혁은 '~을 하기 위해서'아니라 '~을 막기 위해서'

#북한 화폐개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북한이 전격 시행한 화폐가치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이 시행한 조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화폐개혁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중앙당이 돈도, 쌀도 공급망을 통해 준다고 했지만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남한으로부터 기대했던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중국의 지원도 생각만큼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위신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이 어떠한 정치를 펼치고, 민심이 어떻게 변해 갈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11월 30일 시행한 화폐개혁 조치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필 12월 전인 11월 30일 이었을까요? 12월 달은 총결산을 앞둔 달입니다. 화폐개혁 조치를 꼭 해야 했다면, 3~4월 달이 더 적정한 시기였음에도 11월 30일에 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영희(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북한에서 살다가 온 저도 화폐개혁 사실에 대해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김영수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왜 하필 11월 달에 화폐개혁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2년 7월 1일 화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암암리에 소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과 달리 정말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의 신경제 조치라 생각됩니다. 북한 당국은 어떤 조치를 내 놓았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2년 화폐개혁 당시에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식적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1월 30일 발생한 화폐개혁 조치는 당국이 모든 시장을 국영수매상점으로 전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장을 국영수매로 전환하면 모든 유통을 중앙당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량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산이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국영수매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현재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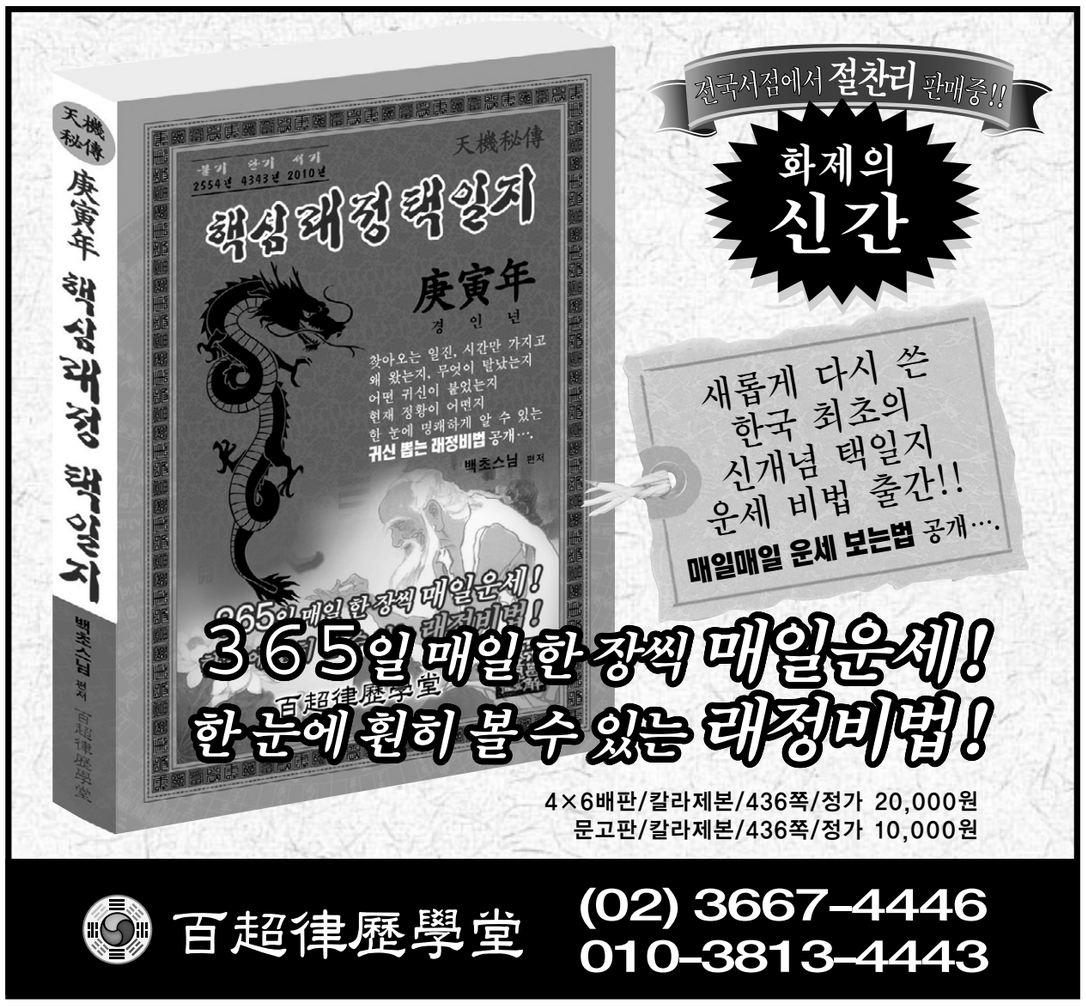
공급은 비슷하나 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물가가 인상되고 있고, 인민들 수중에 현금도 없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북한 당국에서 점진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문석(통일교육원 교수)=북한의 화폐개혁을 보면 3번의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7년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바로 2002년 7월 1일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조치입니다.

이런 화폐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정적인 위기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세기 국가에서 제정상태가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재정위기를 갖고 있으면, 체제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번 화폐개혁은 아마도 북한이 "~을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에 비해 화폐가 많기 때문에 화폐를 증발시켜 버린 것입니다. 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화폐가 없어져야 하는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2002년 화폐개혁 조치를 새로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배급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어느 정도 억압하면서 수익을 내야 했습니다.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아마도 2002년 화폐 교환 조치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쌀 가격이 1400원이었던 것이 14만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화폐개혁입니다. 국가가 재정위기만 탈출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공급위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의 결과를 '양털깍기'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장에 적절하게 돈줄이 뭉쳐져 있을 때가 양털이 적당히 자란 시기라고 본다면, 정부는 이 양털이 적당히 자랐을 때 깎아 버린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기로 봤을 때, 이 양털은 5~7년을 주기로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